

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3년 1월 28일(월) 15:00
2. 회의장소 : 효성관 8층 종합회의실
3. 참석위원 : 10명 전원 참석
4. 회의안건
 - 1) 제1호의 안 : 위원장 선출
 - 2) 제2호의 안 : 2013학년도 등록금 책정 심의

5. 회의내용

- 1) 제1호의 안 : 위원장 선출 건

임시 사회자 : 현재 등록금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아 등록금 책정 담당 부서인 기획팀 팀장인 제가 위원장 선출 사회를 보겠습니다.

그럼 등록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 제1 항에 의해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.

최경수 위원 : 기획처장이신 서열규 위원을 추천하다.

임시 사회자 : 서열규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. 다른 의견 없습니까?

이용하 위원 : 서열규위원 추천에 동의하고 재청하다.

임시 사회자 : 다른 추천이 없으므로 서열규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대하여 각 위원의 의견을 구하다.

전 위원 : 찬성하다.

임시 사회자 : 전 위원 찬성으로 서열규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사회를 넘기겠습니다.

2) 제 2호의 안 2013학년도 등록금 책정건

47
위원장 : 2013년~~학년도~~ 등록금 책정과 관련하여 최근의 ^가물가^상동향, 최근 수년간^가 본 대학 등록금 책정 상황 및 2013학년도 예산^가편성(안)^가 등 등록금 책정 근거, 수도권 대학의 등록금 책정 현황 등을 설명한 후 회의 자료에 명시한 2013학년도 예산 편성(안)에 근거하여 2013학년도 등록금을 동결 책정하였는바, 이에 대하여 각 위원의 의견을 구하다. 1/112

이용하 위원 : 등록금이 다른 대학도 우리대학처럼 계열별로 차등이 있는지 문의하다.

위원장 : 타 대학 역시 계열별로 차등화 되어 있음을 설명하다.

최경수 위원 : 국가 시책인 반값 등록금은 학생 개인별 실질 부담액이 1/2로 감소한다는 의미로 2013학년도에 학생들의 실질 부담 비율에 문의하다.

위원장 : 등록금 실질 부담률이 2012학년도 대비 2013학년도에 5% 감소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음을 설명하다.

최경수 위원 : 현 상태로 계속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는 경우 결산 시 이월금의 감소를 불러올 것인바, 언제까지 이러한 편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다.

위원장 : 정부의 방침상 학생 자원 감소와 더불어 수입 결손에 따른 부실 대학의 퇴출 시까지는 계속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대학은 아직까지는 양호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다.

이용하 위원 : 추후 학생수 감소가 예상된다면 교수, 직원수 등에 대한 대책과 비활용자산에 대한 처분 등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하여 문의하며 결론적으로 이와 연계된 등록금 책정안에 대하여 심의할 것을 요구하다.

위원장 : 장기적인 계획은 수립중이며 이러한 계획하에 등록금이 책정된 것으로 현 책정안에 대하여 각 위원의 의견을 구하다.

김진강 위원 : 우리대학이 계열에 따라 타 대학보다 등록금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문의하다.

위원장 : 수도권 주요대학 중 우리대학의 등록금이 낮은 편으로 자료를 확인하며 설명하다.

김진강 위원 : 학생들의 등록금 실질 부담률에 대하여 문의하다.

위원장 : 2012학년도에는 25%를, 2013학년도에는 30% 내외의 등록금 실질 부담률이 되도록 책적하였음을 설명하다.

최경수 위원 : 2012년 회의 시에도 의견을 제시하였는바, 실질 등록금 부담률 등 이에 ~~관련한 회의자료가~~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, 또한 우수한 교수진 등 타 대학과 차별화된 교육 운영을 위한 소요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각 위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질의하다.

위원장 : 교육에 대한 결과는 결국 취업률로 나타나며 우리대학은 전국 최상위권 취업률로 열악한 교육환경과 취업률을 보이는 타 대학과의 비교는 불합리하다고 설명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교사 확보율 100% 충족을 위한 교사 신축에 대하여 설명하다.

이용하 위원 : 교사 신축은 꼭 필요하며 학생들도 이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낄 것이고 동의해야 할 것으로 개진하다.

김진한 위원 : 교육의 질이 등록금 액수보다는 훨씬 중요하며 장래를 위한 투자 등 길게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개진하다.

최경수 위원 : 제반 설명과 검토를 통하여 본 등록금 동결안에 동의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결국 결산을 통하여 알수 있으므로 추후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다.

이용하 위원 : 어차피 예산 자문을 위한 대학평의회에서 편성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을 것이므로 평의회에서 추가 검증할 것을 제의하다.

김진한 위원 : 등록금을 인하다면 결국 인건비 축소를 불러오며 이는 대학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인바, 장래적으로 대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한 등록금 책정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 원안대로 수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하다.

위원장 :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 졌다고 판단되는바, 각 위원들의 등록금 책정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다.

이제진 위원 : 각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의 실질 부담률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다.

위원장 : 국가장학금은 학생들의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급되고 대학 자체 장학금 역시 일정부분 소득 수준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난해에는 등록금 대비 25% 정도의 장학금을, 2013학년도에는 30% 정도의 실질 부담이 되도록 책정했음을 설

명하다.

이용하 위원 : 학생들이 장학금 내역 및 등록금 내역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줄 것을 위원장에게 요구한다.

위원장 : 타 대학 자료 등 준비한 자료로 설명한다.

김태훈 위원 : 등록금을 보더라도 인문사회 계열은 공업계열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편인데 추후 우리대학도 학과 재편을 고려하고 있는지 문의하다.

위원장 : 학생 취업률, 입시 지원율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심도 있게 검토 중임을 설명하다.

이용하 위원 : 공업계열 학과 출신인 동창회장으로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당장은 학생 측면에서의 학업 편이성과 대학의 운영 편이성 등이 유리해 보이나 장기적으로 공업계열 학과를 계속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다.

김태훈 위원 : 교사 신축 등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에 대하여 문의하다.

위원장 : 교사 신축 같은 사업은 매년 있는 사업이 아니며 수십년에 걸쳐 적립된 적립금으로 시행하는 것이며 추후 적립금이 소진된다면 이런 대형 사업 시행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을 설명하다.

김진한 위원 : 학생 입장에서 당장은 등록금에 대한 인하가 더 좋을지 모르지만 장래를 위해서는 오히려 교육의 질 제고가 더 중요하므로 등록금 동결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2013학년도 등록금 책정(안)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발의하다.

최경수 위원 : 동의하고 재청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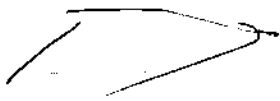
전 위원 : 동의하다.

위원장 : 전 위원 찬성으로 2012학년도 등록금 책정(안)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폐회를 선언하다. (폐회시간 17:3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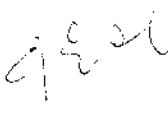
2013년 1월 28일

위원장 : 서열규

위 원 : 성백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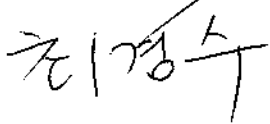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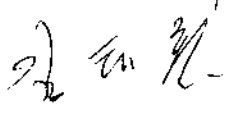
박군종 

이은광 

이용하 

김진한 

최경수 

김태훈 

김진강 김진강

이제진 